

제18차 세계표준협력 회의(GSC-18)



위규진 TTA 표준화본부장
임희성 TTA 표준협력부 선임

1. 머리말

2014년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2일반 간 프랑스 소피앙티아폴리스에서 ETSI의 주최로 제18차 세계표준협력회의(GSC, Global Standards Collaboration)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ITU, 유럽(ETSI), 미국(ATIS/TIA), 일본(ARIB/TTC), 중국(CCSA), 한국(TTA) 및 새롭게 가입한 IEEE-SA 등 GSC의 회원기구와 인도의 TSDSI, GISFI를 비롯 GM, HGI 등 초청기업/기관을 포함 80여 명이 참가하여 사물인터넷(M2M/IoT), 소프트웨어정의네트워킹/네트워크기능가상화(SDN/NFV), 재난통신(Critical Communication) 3개 전략주제를 중심으로 정보공유 및 표준화 추진 방향과 전략에 대한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다. 금년 회의는 지난 GSC-17회의 시 GSC 회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표준화 전략 중심의 회의로 개편키로 결정함에 따라 변경된 회의 방식이 적용된 첫 번째 회의였다.

세계표준협력회의는 표준을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세계 주요 표준개발기구 간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표준화 방향과 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표준화 협의체의 전략적 중요성은 미래 사회의 핵심 표준화 대상 항목을 사전에 확인하고, 기관 간의 표준 개발 정보 및 전략을 공유함으로써 표준 개발의 중복 방지 및 협력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GSC는 3GPP/3GPP2 등 표준화기구 간 협력 프로젝트를 탄생시킨 실질적인 주체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능동적이며 전략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2. 주요 회의 내용

기존 회의에서는 사용자와 산업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술발달에 있어 표준화가 핵심역할을 하는 다수의 HIS(High Interest Subject, 핵심 관심 분야)를 선정하여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회의

에서는 표준화가 핵심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신기술로써 빠른 전략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3개의 전략주제(M2M/IoT, SDN/NFV, Critical Communication)를 선정하여 해당 주제별 세션 논의가 진행되었다. 각 세션에서는 회원 표준화기구 뿐만 아니라 초청한 업체/기관의 발표가 있었으며, 질의응답 및 논의가 진행되었다. 주요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2.1 사물인터넷(M2M/IoT)

성공적인 사물지능통신 및 사물인터넷의 여부는 국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표준의 존재와 관련된 규모의 경제에 달려있음에 따라 첫 번째 전략주제인 사물인터넷에 대해 진행 중인 많은 표준화 활동과 그들의 관계에 대해 발표·논의되었다. ITU와 3GPP 협력모델을 참고하여 ITU와 oneM2M과의 협력관계 구축 및 강화의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세계표준협력회의 회원기관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물인터넷 활동의 통합 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세션에서는 의료, 자동차분야 등 다양한 산업체(verticals)들이 참가하여 각 산업체가 가지고 있는 사물인터넷 표준화의 기대수준과 요구사항을 발표함으로써 추후 산업체와의 더욱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이에 맞춰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새로운 회원기관인 IEEE-SA에서도 사물인터넷(IoT) 관련 아키텍처 표준화를 위해 만들어진 신규 그룹인 IEEE P2413을 소개하였다. IEEE P2413은 전반적인 산업체(verticals)와 이해관계에 있는 그룹을 모두 포함하여 시스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상호 호환이 가능하게 하는 표준 개발에 목적을 가진다. 하지만 이는 기존 GSC 회원 기관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oneM2M 협력체에서 진행해왔던 부분

과의 중복에 대한 우려가 있어, 추후 IEEE-SA와의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2 소프트웨어정의네트워킹/네트워크기능가상화(SDN/NFV)

두 번째 전략주제로는 현재 급속하게 진보하여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더욱 큰 유연성을 제공하고 그들의 서비스를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정의네트워킹 및 네트워크기능가상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TTA를 포함하여 회원 표준화 기관별 소프트웨어정의네트워킹/네트워크기능가상화 표준 진행 현황을 공유하였고, 소프트웨어정의네트워킹/네트워크기능가상화의 사업적 측면과 활용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소프트웨어정의네트워킹/네트워크기능가상화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산업체 활동 및 계획, 소프트웨어정의네트워킹과 네트워크기능가상화 사이의 시너지 효과에 대해 좀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부흥하는 신생기술로 정보공유 차원의 발표 위주로 진행되었으나, 각 기관별 해당 주제에 대한 진행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중복되는 이슈들도 있어 세계표준협력회의 차원에서 조율 및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2.3 재난통신(Critical Communication)

세 번째 전략주제는 재난통신으로 재난구조발생 상황을 위한 공공안전서비스 통신시스템, 대규모 공공 정보 시스템, 긴급 전화 시스템과 통신시스템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러한 시스템들을 위한 표준들과 해당 표준사용에 대한 각 지역/국가(일본, 중국, 유럽, 북미)의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세계표준협력회의(GSC) 재난통신 전담반(Task Force)의

활동보고 및 2차 보고서가 소개되었는데, 동 2차 보고서에는 1차 보고서에서 주로 다룬 회원국가 현황뿐만 아니라 회원 이외의 국가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어 재난통신 관련 전문가들 및 정책입안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승인된 보고서는 세계표준협력회의 홈페이지 및 각 회원기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전달받은 전 세계 국가들의 규제 및 표준 채택현황을 추가하여 보고서를 업데이트 예정이다.

재난 구조 전문가들이 시스템 등의 불 호환으로 통신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계표준협력회의는 이러한 어려움을 줄이고 표준의 전 세계 조화를 통해 재난통신서비스 개선을 함께 도모할 예정이다.

2.4 수석대표 회의

두 번에 걸쳐 진행된 수석대표 회의에서는 2008년부터 제안 접수된 IEEE-SA의 신규 회원 승인에 이어 인도 표준화 기관인 TSDSI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Development Society, India)의 회원 가입이 승인되었다.

또한,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된 18차 세계표준협력회의 방식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수석대표들은 기존보다 본 회의 방식이 더욱 풍부한 기회와 협력을 제공한다는데 동의하였으나, 추후에는 전략적 주제에 대해 내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세션을 운용하는 형식, 주제 내의 이슈들에 대한 더욱 많은 준비를 거쳐 좀 더 명확한 방향성 제시를 기대하였다.

다음 수석대표 전화회의에서는 새로운 회의형식에 대한 참가자들의 설문조사 결과 등을 기반으로 차기 19차 회의 시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 수정해야 할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3. 맺음말

표준은 기술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상호 협력과 공유를 통해서만이 명실공히 성공한 글로벌 표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글로벌 표준화 전략을 수립할 때 기술 경쟁력과 함께 다른 표준화 기구와의 조화로운 협력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TTA는 앞으로도 세계표준협력회의 등의 회의를 통해 다른 지역/국가 표준화기구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성과를 함께 공유할 것이다. 차기 제19차 회의는 ITU 주최로 2015년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